현시기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 승 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분조는 농장에서 공동로동과 집단생활의 단위이다.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분조관리제가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기때문이다.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작용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며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은 그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면 그에 망라되는 성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주인답게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분조판리제는 우선 분조원들의 공동로동과 집단생활단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있다. 농장원들은 공동경리의 주인이고 생산의 담당자이므로 마땅히 공동경리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공동경리생산에 대한 성실성정도는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함께 공동로동과 집단생활단위의 크기에 의존된다. 분조관리제에서는 분조를 공동로동과 집단생활단위로 밀착시켜 분조원들이 서로 알고 리해를 깊이할수 있게 비교적 작은 규모로 조직한다. 그리하여 분조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주인답게 일하게 된다.

분조관리제는 또한 분조의 생산과제가 분조 전체 성원들의 공동의 과제로 되며 그 과제의 수행정도에 따라 분조성원들을 사회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평가해준다.

근로자들이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리해관계와 요구를 어느 정도 실현시켜주는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통일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집단의 리익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개별적소집단과 집단을 이루는 개인의 리익이 잘 보장되여야 근로자들이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일을 주인답게 성실히 하게 된다.

분조관리제에서 분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집단의 요구이므로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사회적집단의 요구가 실현될뿐아니라 분조집단과 개인에게 차례지는 리익도 그만큼 커진다. 그리하여모든 분조원들은 분조의 농사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게 된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분조관리제가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관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우월한 농장관리방법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업근로자들은 생산의 주인인 동시에 관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면 생산자대중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관리운영 사업에 주인답게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분조관리제에서는 로력조직과 로력관리, 부침땅관리, 농기계 및 농기구를 비롯한 공동재산관리가 정해진 질서에 따라 모든 분조원들의 공동의 관심속에 알뜰히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영농공정에 참가하는 성원들의 로동실적을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분조원들이 영농기술공정을 성실히 수행하게 한다. 이와 함께 분조성원들의 사회주의적분배를 분조의 생산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분조와작업반, 전반적인 농장관리운영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한다.

현시기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 이 발양시키도록 하는것이다.

분조판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분조의 주 인인 농장원들이 분조농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발휘하는가 하 는데 달려있다.

우선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명백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생산자들에게 책임한계와 수행목표를 명백히 주고 총화를 정확히 하는것은 그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 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제를 명백히 주고 총화를 정확히 하여야 그들이 주인다운 자 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최근에 농촌경리부문에서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있는 분조 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협동농장들의 자체실정에 맞게 옳게 적용하여 농업생산 에서 은이 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장원들이 담당포전을 자기 포 전처럼 생각하고 주인답게 일해나가도록 분조관리제안에서 작업조나 농장원들에게 년중 혹은 영농공정에 따라 포전관리를 맡겨준 다음 담당포전의 영농작업수행결과와 생산 및 수매계획수행결과를 놓고 포전담당자들의 로동보수를 계산하여주는 작업조직방법이며 도 급제의 한 형태이다.

또한 분배를 철저히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생산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그에 해당한 보수를 주는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이며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분조들에서는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부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로력일은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을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므로 로력일평가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들이 일한것만큼 제때에 정확히 평가해주어야 사회주의분배를 옳게 실시할수 있다. 그리고 분조들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한 알곡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로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물을 기본으로 하는 분배에서는 국가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리해관계, 생활상요구를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알곡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농업근로자들이 자신심을 가지고 분발하여 투쟁할수 있다.

현시기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분조장들 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분조장들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들이

며 분조농사와 관리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농촌의 초급지휘성원들이다. 분조장들이 자기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의 농업정책이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분조관리제의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분조장들은 우선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 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여 물려주신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 농법이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 집약농법이다.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유일한 지도 적지침, 행동의 지침으로 되며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으로 된 다.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가장 정당한 행동의 지침으로, 확고한 신념 으로 간직하고 농장원들에게 적극 해설선전하여 분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조장들은 또한 분조농사와 분조판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의 참 된 주인, 능숙한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

분조농사와 분조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것은 분조의 주인, 지휘관으로서의 분조장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분조장들이 분조농사와 분조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야 분조농사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분조에 제시된 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분조장들은 분조의 실정에 맞게 영농공정별계획을 예견성있게 세우고 로력조직과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조농사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설뿐아니라 생산을 늘이고 분조관리를 더 잘하기 위하여 늘머리를 쓰고 궁리를 많이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분조원들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발동하여 분조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분조장들은 또한 모든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새 세기의 진짜배기실농군이 되여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의 농사는 현대농업과학기술에 기초한 과학농사이다. 분조장들이 필지별, 포전별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력상태와 자연기후적특성, 품종별 농작물의 재배방법과 기술에 정통하고 선진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새 세기의 진짜배기실농군이 될수 없으며 분조농사를 옳게 지을수 없다.

분조장들은 농사일에서 모르는것, 막히는것이 없어야 하며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것에 민 감하고 진취성이 강해야 하며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 좋은 농사경험들을 대담하게 받아들 여 새 세기 진짜배기실농군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분조장들은 또한 농장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애호관리하는 착실한 살림군이 되여야 한다.

농장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애호관리하는것은 애국심의 표현이며 분조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물질적조건보장의 중요전제이다. 분조장들이 분조원들과 마음을 합쳐 토지와 농기계, 부림소, 영농기자재들을 자기 재산, 자기 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여야 영농공정수행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분조재산을 늘일수 있다.

분조장들은 농장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애호관리하는 착실한 살림군이 되여야 하며 모든 분조원들도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 게 참가하도록 하여 그들속에서 농장재산과 생산물을 되는대로 다루거나 랑비하는 현상 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조장들은 또한 분조원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분조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야 한다.

분조장과 분조원들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칠 때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 신이 높이 발양되여 백가지 농사일이 다 잘된다.

해마다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본보기농장들의 경험은 분조장들이 분조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분조원들모두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 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든 영농공정을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고 농장벌마다 풍 요한 가을만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분조장들은 성격과 취미, 수준이 서로 다른 분조원들을 다같이 따뜻이 대해주고 그들의 살림을 진심으로 위해주며 자기 집일보다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줌으로써 분조원들로부터 《우리 분조장》이라고 정답게 불리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것이다.